



##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 -
-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고속심사(1개월 내 심사) 확대 -
- 해외출원 80%까지 확대, 우리기술이 로열티를 버는 ‘흑자 시대’로 전환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기술 본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 3대 추진전략 ]

지식재산처는 40여회에 걸쳐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등 현장에서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①심사속도와 ②특허품질을 혁신하고 ③특허시스템을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하는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했다.

#### 전략①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를 구현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벤처·새싹기업의 창업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을 1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이재명 대통령, 제21차 대수보 회의, '26.1.29)

아울러,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인공지능·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 전략② 기술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품질을 혁신한다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한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여 특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심사품질 관리방식 또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특허심사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략③ 현장중심의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함께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하여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SW)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상 구제수단이 확대되어 특허권의 확보와 유지가 한층 수월해진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 국내출원인의 한국출원건수(195,786건) 대비 해외출원건수(100,251건) (WIPO, '2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심사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김영표 (042-481-5389)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양웅철 (042-481-3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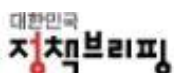


사진 1,2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3.19.(목) 14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3 : 사전 브리핑 전경사진



**비 전**

**지식재산이 선도하는 진짜성장 구현**

**목 표**

**기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3대 추진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1**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1** 글로벌 기술선점을 지원하는 심사기간 단축
- 2**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심사속도 제공
- 3** 심사인력 수급 및 운영체계 고도화

**2**

**시장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특허품질 혁신**

- 1** 고품질 특허창출의 기반이 되는 출원품질 제고
- 2** 혁신기술 활로를 가로막는 낡은 심사관행 혁파
- 3** 심사전문성 강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 4** 심사품질 관리체계 고도화

**3**

**고객친화적  
심사시스템 구축**

- 1** 발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심사시스템 구축
- 2** 현장을 지향하는 특허제도 개선
- 3** 우리기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기대효과  
(’29년)**

- ▶ **특허품질 글로벌 TOP 1 달성**
- ▶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 80% 이상 달성**
- ▶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주요 내용(3대 추진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① **(전략1)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심사기간 단축) 심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內, 심사종결기간을 16개월內로 단축
  - \*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이재명 대통령, 제21차 대수보 회의 '26.1.29)

**“청년 석·박사 & 민간 경력자 2-Track 증원”**

- (청년 석·박사) AI·양자 등 신기술 분야 이공계 우수인재 채용 → 최신 기술 대응
- (민간 고경력자) 반도체 등 주요산업 민간퇴직자 채용 → 기술유출 방지 및 노하우 활용

-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심사속도) 신속한 특허확보를 지원하는 초고속심사 확대, 특허확보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늦은심사 제도 개선\*
  - \* 늦은심사 신청 후, 시장상황 및 기업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심사로 전환 가능
- (인력운영 고도화) 중장기 인력수급 로드맵 구축, 심사관 재교육을 통한 인접분야 재배치 등 심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② **(전략2) 시장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특허품질 혁신**

- (출원품질 제고) 고품질 출원환경 조성을 위해 AI 등 분야별 특허출원 지침을 수립하고, 대리인 수입료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 (심사관행 혁신) 규제중심 심사실무 및 기준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 (심사전문성 강화) 유럽식 3인 협의심사 확대\* 및 현장형 기술교육체계\*\* 구축
  -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설조직에 국한 → (개선) 수출 15대 품목분야로 확대
  - \*\*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 신설
- (심사품질 관리 고도화) 심사품질 관리를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혁신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질관리지표 수립

③ **(전략3) 고객친화적 심사시스템 구축**

- (소통형심사 강화)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적극심사\* 활성화 및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심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
  - \* 심사과정에서 출원인과 소통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함께 설계
- (특허제도 개선) '29년 PLT\*(특허법조약) 가입, AI, SW와 관련된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언어제한 폐지, 권리회복기간 부여, 공증·인증절차 완화 등
- (글로벌 협력 강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심사협력\* 강화
  - \* (선진국)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협력심사(동일출원건 대상) 시행
  - (신흥국) 韓특허를 외국에서 신속심사하거나(PPH), 韓특허를 그대로 인정해주는(PRP) 심사협력 확대

□ **향후 계획**

-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관련 법제 및 실무 개선 등 이행과제 추진('26~)